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간의 관계: 비교문화연구¹⁾

장 미 경²⁾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에 대한 회상과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를 한국과 미국간에 비교 연구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방식이 문화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147명의 백인계 미국 대학생과 221명의 한국 대학생이었으며, 측정도구는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에 관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그들의 부모를 보다 온정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 부정적인 네트워크오리엔테이션을 보였고, 사회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적었으며, 또한 그러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모두에 대해서 회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은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미국대학생들은 아버지를 온정적이고 따뜻하였다고 회상할수록 좀 더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인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어머니를 온정적이었다고 회상할수록 보다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통제성은 사회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들이 갖는 시사점 및 제한점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개념이 Weiss (1974)와 Cobb(1976)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어 진 이후,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많은

1)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부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mkj07@yonsei.ac.kr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위의 사회 망(social network)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양식,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으며, 또한 사회 망의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많은 예방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예, Hirsch & Reischl, 1985; Sandler, 1980; Quamma & Greenberg, 1994). 그러나, Newcomb(1990)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외부의 사회 환경으로부터 개인으로의 일방향적인 영향으로서 간주되어 왔으며, 비록 개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은 다양하지만 비교적 한 개인에 대해 불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Vaux(1988)가 제시한대로, 사회적 지지과정은 보통 개인이 사회 망으로부터 도움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며,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성에서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망의 발달과 사회적 지지의 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의 역할은 사회적 지지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의 하나로서,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후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network orientation)으로 표기)은 최근에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예, Tolsdorf, 1976; Eckenrode, 1983; Vaux, Burda, & Stewart, 1986; Barrera & Baca, 1990). 도움을 요청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연구자는 Tolsdorf(1976)였는데, 그는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 망에 있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유용성에 관해 개인이 가지는 믿

음, 태도 및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Tolsdorf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회 망으로부터 얻는 도움의 효율성에 관해 비교적 안정된 태도를 발달시키며 사회적 지지 망이 때로 개인의 안녕과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개인이 그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사회적 지지 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며, 잠재적으로 위협하다는 일련의 기대나 믿음”이라고 하였다(p. 413).

Tolsdorf의 초기연구(1976, 1978) 이후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지 과정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Jang, 1997 참고). 즉,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사용 가능한 도움이 적었으며(Vaux & Wood, 1987; Vaux, Burda, & Stewart, 1986; Pretorius, 1993),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적었고(Vaux, Burda, & Stewart, 1986; Pretorius, 1993),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실제 이용하는 사회적 지지의 양도 적었으며(Eckenrode, 1983), 또한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낮은 만족감(Vaux & Wood, 1987; Barrera & Baca, 1990; Belle, Dill, & Burr, 1991)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이러한 영향에 더해, 기존의 연구들은 또한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사회 망에 대한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은 낮은 수준의 우울증 및 불안감과 연관되어 있으며(Barrera & Baca, 1990; Hobfoll & Lerman,

1988; Gruen, Schulberg, Nelson, Epstein, Weiss & Quinlan, 1994; Pretorius, 1994; Garland & Zigler, 1994; Riley & Eckenrode, 1986; Gannon & Pardie, 1989), 내적 통제 의 소유(Eckenrode, 1983; Belle, Dill, & Burr, 1991), 높은 자아존중감(Belle, Dill, & Burr, 1991) 및 다른 사람들과의 높은 친밀감(Hobfoll & Lerman, 1988)과 관련되어 있어서 개인의 효율적인 적응과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사회적 지지의 과정과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가 수행되어오지 않았다.

초등 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종단 연구에서 Belle, Dill, 및 Burr(1991)는 실제로 이전에 경험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내적통제의 소재가 아동의 이후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niesin(1997)은 여성이 아동기에 받은 신체적 혹은 성적인 학대 경험과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측면들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그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좀 더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숙자 여성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Goodman(1991)은 이 두 여성 그룹 사이의 사회적 지지 망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측정된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오직 그들의 네트워크 오리엔테

이션에서만 발견되었는데, 노숙자 여성들이 가난한 여성들보다 좀 더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고하였다. 또한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Wallace와 Vaux(1993)는 안정적인(secure) 애착 유형을 가진 대학생들이 회피적이거나(avoidant) 불안한(ambivalent) 애착유형을 가진 학생들 보다 그들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해 보다 긍정적임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몇몇 선행 연구들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 과거에 받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아동기때 신체적 또는 성적인 학대의 경험 등이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의미있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전에 가졌던 관계나 과거 경험이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최초의 관계는 영아기 때 어머니나 혹은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이며(Bowlby, 1973, 1980, 1982),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므로 부모의 태도 및 양육행동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지신, 1996). 또한 Wallace와 Vaux(1993)의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대학생들이 보다 긍정적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후에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지만,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

가 후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예, Collins & Read, 1990;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예를 들어, Collins와 Read(1990)는 부모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차갑지 않았다고 보고한 개인들은 부모가 차갑고 비 일관적이었다고 지각한 사람들보다 후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편안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Lamborn 등(1991)에 의하면, 또한 부모의 수용성과 부모의 아동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지각과 자기신뢰의 발달, 그리고 심리적인 안녕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해볼 때 초기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가 후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향성, 즉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및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방식의 일반적인 2차원, 즉 부모의 수용성과 통제성의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예, Chao, 1994; Rohner & Pettengill, 1985).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ohner와 Pettengill(198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통제성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지각은 부모의 온정성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으며, 부모의 낮은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청소년에 관한 연구결과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미국의 청소년들은 엄격한 부모의 통제를 부모의 적대감

과 거부로써 지각하였다. Chao(1994)는 또한 중국 문화에서 부모의 통제성이나 엄격함의 의미는 부모의 관심, 관여 및 보살핌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서구문화와는 다르게 아시아 문화에서 부모의 통제성은 '훈련(training)'이라는 개념과 더 적절히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부모의 수용성은 범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부모의 따뜻함, 지지, 상호작용, 그리고 관심을 나타낸다. 반면, 부모의 통제성과 엄격함은 문화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과 유럽 문화권에서 부모의 통제성은 부정적인 의미, 즉 부모의 적대성, 공격성, 혹은 부모의 지배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양문화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친밀한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간의 조화와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위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동양사회에서 부모의 통제성과 엄격함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염려, 그리고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Chao, 1994; Rohner & Pettengill, 1985). 그리하여, 동양문화권에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의 발달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미국이나 유럽문화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영향은 문화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비교문화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의 지각과 관련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한국과 미국학생들간에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 즉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지각된 사용가능한 사회적 지지의 양 및 그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간의 관계가 각 문화에 따라서 어떤 유형을 보이는 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의 Boston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과 한국의 서울에 있는 Y대학과 S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었으며, 1999-2000년도에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209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백인계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과의 비교문화연구를 위해서 미국 대학생 자료중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파니아계 미국인 대학생 62명을 제외한 후, 147명의 백인계 미국 대학생들의 자료만이 본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147명의 백인계 미국 대학생들과 221명의 한국 대학생들이었다. 백인계 미국 대학생은 73명의 남학생과 74명의 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는 17-24세로 평균 연령은 18.9살이었다(SD = 1.22).

한국의 대학생은 124명의 남학생과 97명의 여학생이었으며, 나이는 18-26세로 평균 연령은 19.9살이었다(SD = 2.18).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수용성 및 통제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및 다른 대인관계에 관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에 의해 번역된 후, 두 개국어(상용(bilingual)하는 미국에 있는 2명의 한국인 2세 대학원생에 의해 역번역의 과정을 걸쳐 수정된 후 한국에서 실시되었다.

(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아동기 때 경험한 부모의 온정성은 4개의 하위척도(온정성, 적대감, 무관심, 미분화된 거부)로 구성된 60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인 PARQ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Rohner, 1984) 에서 온정성과 거부 척도중 부모의 온정성과 관련 있는 25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항상 사실이다”에서 “거의 사실이 아니다”에 이르는 4점 평정척도로서 참가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 문항이 그들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 지를 평가하였다. PARQ 문항의 예로는 “어렸을 적에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우리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시고, 나의 의견을 들곤 하셨다”, “어렸을 적에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나에게 이야기하시곤 하셨다” 등이 포함된다. Rohner(1986)의 연구에서 보고된 성인용 PARQ의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 - .95였

으며, 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25문항의 온정성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백인계 미국인의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95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94이었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경우 Cronbach α 계수 .94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93이었다.

(2)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RPBI)

부모의 통제성은 Schludermann과 Schludermann(1970)에 의해 개정된 18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진 108문항의 CRPBI(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Schaefer, 1965)중에서 부모의 통제성과 관련된 5가지 하위척도 25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i.e., control, enforcement, lax discipline, extreme autonomy & nonenforcement). 참가자들은 각 문항이 어느 정도로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아버지(어머니)와 유사한지를 3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어렸을 적에,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규칙을 정하시고 그것을 고집하시곤 하셨다" 등이다. CRPBI의 내적 합치도는 .66 - .84로 보고되었으며 (Schaefer, 1965),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척도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는 .89, 어머니에 대해서는 .88이었으며, 한국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는 .88, 어머니에 대해서는 .88로 나타났다.

(3) Network Orientation Scale (NOS)

NOS (Vaux, Burda, & Stewart, 1986)는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척도로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

을 사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성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이 질문지는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점수는 사회적 지지의 자원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 즉,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낸다. NOS의 내적 합치도는 .60-.88이었으며, 1, 2주 후의 검사-재검사 법 신뢰도는 각각 .85와 .87 보고된 바 있다 (Vaux, Burda, & Stewart, 1986). Vaux, Burda, 그리고 Stewart(1986)는 또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지와 성격 변인들과 관련하여 NOS의 적절한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NOS의 내적 합치도는 백인계 미국대학생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85이었으며, 한국대학생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76이었다.

(4)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SSQ)

SSQ(Sarason, Levine, Basham, & Sarason, 1983)는 개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과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한 2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참가자들은 첫번째 여러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최대 9명까지 나열하고, 다음은 6점 척도를 이용하여 그들이 얼마나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게 된다. Sarason et al.(1983)은 사회적 지지의 양에 대해서는 .97, 지지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는 .94의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으며, 4주에 걸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지각된 양에 대해서는 .90, 그것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는 .83).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 .97, 한국대학생의

표 1.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에 대한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미국대학생 평균 (SD)	한국대학생 평균 (SD)
자녀양육방식		
아버지 온정성	84.04 (13.41)	76.08 (12.50)
아버지 통제성	53.03 (9.89)	46.44 (9.38)
어머니 온정성	89.53 (10.60)	82.62 (10.93)
어머니 통제성	52.68 (8.65)	44.24 (8.96)
사회적지지망		
네트워크오리엔테이션	41.45 (7.83)	43.79 (6.06)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양	123.65 (56.59)	89.84 (45.47)
지지에 대한 만족감	139.91 (19.41)	119.76 (26.76)

미국대학생의 경우 전체 n = 147, 한국대학생의 경우 전체 n = 221

경우 .96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 Cronbach α 계수 .97, 한국대학생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96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일원변량분석,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미국의 대학생 참가자들은 Boston 대학의 심리학과 게시판에 부착된 본 연구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읽고 실험 참가자에 사인함으로써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Boston 대학 심리학과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실험 참가동의서가 회수되고 자료조사가 진행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학개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양국 대학생 모두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심리학 개론 수업에 credit을 받았으며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4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결과

문화에 따른 부모자녀양육방식 및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지각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아동기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에 대한 회상과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변인들의(이후 주요 변인들로 표기)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이들 주요 변인들에 대하여 각 문화간(한국과 미국)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 배경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MANOVA(Multi-

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M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F(4, 359) = 51.22, p < .001$). 이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 모두에 대하여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보다 온정적이고 보다 통제적이라고 회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온정성($F(1, 362) = 31.91, p < .001$), 아버지 통제성($F(1, 362) = 44.50, p < .001$), 어머니 온정성($F(1, 362) = 41.58, p < .001$), 어머니 통제성($F(1, 362) = 80.24, p < .001$).

두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지각과 관련하여 문화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된 MANOVA 결과 또한 문화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냈다 ($F(3, 358) = 23.47, p < .001$).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 360) = 11.52, p < .01$),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고($F(1, 360) = 39.33, p < .001$), 또한 그러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보다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F(1, 360) = 58.16, p < .001$).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지각과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개인의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SES), 종교의 유무, 부모의 교육수준이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결과만을 각 문화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 대학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

표 2. 미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의 종교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교의 유무		F
	무종교	종교	
미국대학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86.20 (52.52)	131.51 (54.54)	14.44***
지지에 대한 만족감	132.16 (19.92)	141.54 (18.99)	4.95*
한국대학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82.66 (42.43)	95.93 (47.34)	4.61*

* $p < .05$. ** $p < .01$. *** $p < .001$.

생들의 나이는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 = .18, p < .05$),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다($r = -1.67, p < .05$). 그리하여 학생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종교의 유무가 사회적지지 망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에 대한 one-way ANOVA 분석결과 종교가 있는 미국 대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미국 대학생들보다 사회적지지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더 많았으며($F(1, 142) = 14.43, p < .001$), 그에 대한 만족감도 높게 나타났다($F(1, 142) = 4.95, p < .05$) (표 2 참조).

둘째, 한국 대학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는데($r = .25, p < .001$),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대학생들은 사회적지지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종교의 유무와 관련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대한 one-way ANOVA 분석 결과,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있는 한국 대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15) = 4.61, p < .05$) (표 2 참조).

위의 예비분석에 기초해서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i.e.,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의 유무)은 이후의 분석에서 통

제되었다.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각각의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에 대한 별개의 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회귀모델에 들어갔으며,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 관한 변인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모델에 추가되었다.

먼저 표 3에 제시되어있는 미국 대학생들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상관되어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즉, 나이) 통제후에 아버지의 온정성만이 유의미하게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하였다. 즉, 미국 대학생들은 아버지를 온정적이고 따뜻하였다고 회상할수록($\beta = -.29, p < .01$) 좀 더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성 모두 유의미하게 미국 대학생들의 지각된 지지의 양과 관련되어 있어서(각각 $\beta = .31, p < .001, \beta = .18, p < .05$), 회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의 온정성만이 유의미하게 미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 p < .001$). 즉, 미국 대학생들은 어머니를 온정적이었다고 회상할수록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의 부모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간의 관계(미국 대학생)

	1단계: Beta	2단계: Beta	R ² 의 변화	R ² 변화에 대한 F값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인구통계학적 변인			.03	4.58*
아버지 온정성	--	-.29**		
아버지 통제성	--	.01		
어머니 온정성	--	-.15		
어머니 통제성	--	-.10	.15	6.34***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인구통계학적 변인			.09	13.67***
아버지 온정성	--	.31***		
아버지 통제성	--	.13		
어머니 온정성	--	.18*		
어머니 통제성	--	-.12	.17	7.61***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인구통계학적 변인			.06	4.53*
아버지 온정성	--	.01		
아버지 통제성	--	-.07		
어머니 온정성	--	.35***		
어머니 통제성	--	.02	.13	5.18**

* $p < .05$. ** $p < .01$. *** $p < .001$.

점선 (--)은 그 단계에서 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과, 회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통제성은 어떠한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과도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에 대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 중에서 우선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성만이 유의미하게 한국 대학생들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하였다($\beta = -.17, p < .05$). 즉, 한국 대학생들은 어머니를 온정적이고 따뜻하였다

고 회상할수록 좀 더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통제성은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관련하여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아버지의 온정성과 아버지의 통제성만이 유의미하게 지각된 지지의 양과 관련되어 있어서(각각 $\beta = .19, p < .05, \beta = .17, p < .05$), 한국 대학생들은 아버지를 온정적이고 통제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사회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더 높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의 부모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간의 관계(한국 대학생)

	1단계: Beta	2단계: Beta	R ² 의 변화	R ² 변화에 대한 F값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아버지 온정성	-.07			
아버지 통제성	-.03			
어머니 온정성	-.17*			
어머니 통제성	.11		.07	3.82**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인구통계학적 변인			.03	5.48*
아버지 온정성	--*	.19*		
아버지 통제성	--	.17*		
어머니 온정성	--	.02		
어머니 통제성	--	.07	.04	2.45*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인구통계학적 변인			.06	13.25***
아버지 온정성	--	.19*		
아버지 통제성	--	.05		
어머니 온정성	--	.15*		
어머니 통제성	--	.02	.07	4.19**

* $p < .05$. ** $p < .01$. *** $p < .001$

+ 점선(--*)은 그 단계에서 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지각된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관련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성이 개인의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각각 $\beta = .19$, $p < .05$, $\beta = .15$, $p < .05$). 즉, 한국 대학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온정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지지 망으로부터의 지지에 대해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 회상된 부모의 통제성은 사회적 지지망 변

인들 중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에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에 대한 회상이 문화에 따라서(미국과 한국) 어떻게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어 있는 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간의 문화간 차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다 온정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백인계 미국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성과 통제성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예, Dom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Radziszewska, Richardson, Dent, & Flay, 1996),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백인계 미국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아시아인들 그리고 히스파니아계 사람들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보다 수용적이며 따뜻하고, 보다 통제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어린 시절 그들의 부모가 보다 온정적이고 통제적이었다고 회상하는 것은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간에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였으며, 사회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적었고, 또한 그러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비록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들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및 중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Tata & Leong, 1994; Pretorius, 1993; Hobfoll & Lerman, 1988),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비교문화 연구는 이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개인의 사회적지지 망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는 한 개인이 실제로 어려움 때에 도움을 이용하는 것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Vaux & Wood, 1987; Pretorius, 1993; Eckenrode, 1983). 또한 사회적 지지과정은 보통 개인이 사회 망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찾는 데에서 시작되므로 그러한 주위의 지지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이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의 도움추구 행동 및 건강한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기대가 가지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볼 때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회적 지지 망으로부터의 지각된 지지의 양과 그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도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적은 지지의 양과 낮은 만족감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보다 적은 사회적 지지의 지각, 실제로 받은 적은 지지의 양,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예, Belle, Dill, & Burr, 1991; Pretorius, 1994; Hobfoll & Lerman, 1988; Vaux, & Wood, 1987).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대학생들보다 사회망으로부터 더 적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그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 대학생과 한국대학생 모두에 대해서 회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은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긍

정적인 지각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통제성은 사회적 망으로 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부모의 통제성은 지각된 지지의 양과만 관련되어 있었으며, 어머니의 통제성은 사회적 지지망의 특성들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한국과 미국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이 이후의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몇몇 선행 연구들을 연결지어 봄으로써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2차원적(수용/참여 대 통제/엄격) 평정에 기초해서, Lamborn 등(1991)은 부모의 수용성과 온정성은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지각이나 자기신뢰의 발달에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Belle 등(1991)은 또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지각은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때 부모의 따뜻함과 높은 수용성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긍정적인 자기지각이 개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찾고자 하는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 망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감과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또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특성들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정성과 수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도움에 대해 지각하는 것은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긍정적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특성들의 발달에 아버지 또한 어머니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이 좀 더 자녀양육에 관여하며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에 관해 보다 많은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여성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어머니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보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최경순, 1992). 애착이론가들은 또한 생의 초기의 주요 양육자, 주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이 후에 자기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에 영향을 줌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고립시켜서 연구하는 것은 이후의 개인의 사회 망과 사회적 기능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특히 미국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후에 사회적 지지 망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부모양육방식이 미국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온정성인데 반하여 한국 대학생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온정성이라는 것이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처럼 한국은 유교사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므로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자녀들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들과 비교적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고, 엄격하며, 권위적인 역할을 하여왔다(Rohner & Pettengill, 1985).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아버지는 엄격하고 약간은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용적이고 따뜻하며 자녀와 상호작용

이 많은 어머니가 한국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형성하는데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 의해서도 해석이 가능한데, 장휘숙(2000)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통합적인 자기상인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대학생의 자기정체감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은 긍정적인 자기지각 및 자기존중감등 자아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Belle등, 1991)를 고려할 때, 한국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보다 큰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개인의 도움추구 경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성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통제성이 높을수록 사회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지각된 아버지의 통제성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결과는 Chao(1994)와 Rohner & Pattengill(1985)의 동양문화에서의 부모자녀양육 방식에 관한 설명과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앞에서 소개되어진 대로 부모의 수용성과 통제성의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는데, 부모의 수용성은 범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부모의 통제성은 미국과 유럽 문화에서와는 달리 동양문화에서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유교의 영향으로 아시아계 국가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조화와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위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동양사회에서 부모의 통제성과 엄격함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염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Chao, 1994; Rohner & Pattengill, 1985). 그리하여 이러한 동양사회에서의 부모의 통제성의 긍정적인 의미를 고려해볼 때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통제성은 사회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긍정적으로 연관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통제성은 지각된 지지의 양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부모의 통제성은 지각된 지지의 양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지지망의 특성들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그 동안 여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그러한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의 발달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대학생 모두에 대하여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부모의 따뜻함과 수용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문화에 따라서 부모자녀양육방식이 어떻게 개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적 지지망의 다른 특성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면 청소년들이 실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양을 늘리는데 이용될 수 있어서 그들의 심리적인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

과는 청소년 보호 및 지도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기 부모와의 높은 온정성의 경험이 이후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긍정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부모의 온정성, 수용성, 적절한 참여와, 자녀의 필요에 좀 더 반응적인 부모의 중요성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도록 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중 하나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들로부터 자기보고방식의 질문지 척도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대학생들에 의해 회상된 부모의 양육방식만이 이용되어서 사실상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것은 부모의 실제적인 자녀양육방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에게 현재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현재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이지만,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참가자나 부모를 대상으로 면접 등의 질적 연구방법 또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모두 외국에서 제작된 척도이다. 물론 부모의 온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PARQ는 국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번역·수정되어(김경희 & 황혜정, 1998; 이지원, 1999) 사용된 바 있으나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척도의 문항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낯선 것일 수도 있다. 그 리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화간의 차이가 실

제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측정문화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척도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타당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 부모와의 높은 온정성의 경험이 이후의 개인의 도움요청에 관한 긍정적인 믿음과 사회적 지지 망에 관한 긍정적인 지각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나 연구의 단기횡단적인 특성때문에 그 방향성을 알 수는 없었다. 즉,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이후 개인의 사회망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나 단지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횡단적인 연구이므로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살펴 볼 수는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정교히 디자인된 장기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2-26.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원 (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23-239.
- Barrera, M., & Baca, L. (1990). Recipient reactions to social support: Contributions of enacted support, conflict support and network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541-551.
- Belle, D., Dill, D., & Burr, R. (1991). Children's network orient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362-372.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664-678.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llins, N. L., & Read, S.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om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Eckenrode, H. (1983). The mobilization of social supports : Some individual constrai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509-528.
- Gannon, L., & Pardie, L. (1989). The importance of chronicity and controllability of stress in the context of stress-illness relationship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2, 357-372.
- Garland, A., & Zigler, E. (199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help-seeking attitud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 586-593.
- Goodman, L. A.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family homelessness : A comparison study of homeless and housed mothe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321-332.
- Gruen, R., Schulberg, D., Nelson, E., Epstein, L., Weiss, L., & Quinlan, D. (1994). Network orient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 Development of the network utilization sca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52-365.
- Hirsch, B., & Reischl, T. (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ren of a

-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72 - 281.
- Hobfoll, S.E., Nadler, A., & Leiberman, J. (1986).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during crisis : Intimacy and self-esteem as critical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96-304.
- Hobfoll, S. E., & Lerman, M. (1988). Personal Relationships, personal attitudes, and stress resistance :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s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565-589.
- Jang, M. (1997). *An individual's network orientation*. Unpublished Manuscript. Boston University.
- Lamborn, S., Mounts, N., Steinberg, L., & Dornbusch, S.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Newcomb, M. (1990). Social suppor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 A developmental and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54-68.
- Paniesin, T. (1997). *The social support networks of women reporting histories of physical or sexual abuse : A comparison with non-abus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Pretorius, B. (1993). Willingness to use social support : Use of the network orientation scale with black south African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3*, 1011-1017.
- Pretorius, B. (1994). Network orientation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stress-depression relationship: A south African study.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9*, 1-12.
- Quamma, J., & Greenberg, M. (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95-305.
- Radziszewska, B., Richardson, J., Dent, C., & Flay, B. (1996).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smo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 Ethnic, gender, and SES differenc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9*, 289-305.
- Riley, D., & Eckenrode, J. (1986). Social ties : Subgroup differences in costs and benef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770-778.
-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CA : Sage.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285 - 302.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ludermann, E. & Schludermann, S. (1970). Replicability of factors in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CRPBI). *Journal of Psychology, 76*, 239-249.
- Sdorow, L. (1995). *Psychology*. Brown & Benchmark.
- Tata, S., & Leong, F.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87.
- Tolsdorf, C. (197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 An exploratory study. *Family Process, 15*, 407-417.
- Tolsdorf, C. (1978). *The multi-problem family: Stress, support, and coping in the social network*.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1978.
- Vaux, A. (1985). Factor structure of the network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7*, 1181-1182.
- Vaux, A., Burda, P., & Stewart, D. (1986). Orientation toward utilization of support resourc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59-170.
- Vaux, A., & Wood, J. (1987). Social support resources, behavior and appraisals : A path analysi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105-109.
- Vaux, A. (1988). *Social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Y. : Praeger.
- Wallace, J., & Vaux, A. (1993). Social support network orientation :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354-365.
- Weiss, R.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 (pp. 17-2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Perceptions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and Recollections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A Cross-cultural study

Mikyung Ja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recollections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especially network orientation in Korean and Caucasian American undergraduate students. One hundred and forty-seven Caucasian American and two hundred and twenty-one Korean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al warmth and control and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The results showed that American students recalled their fathers and mothers as more warm and more controlling than did Korean students. Korean students showed more negative network orientation, perceived less amount of social support, and less satisfied with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than did American students. Analyses also revealed that the more individuals recalled their parents as having been warm, the more positive perceptions about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they reported. In addition, recalled father control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amount of social support for Korean student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